

LG이노텍, 협력사 100곳과 동반성장 협약

‘2018 이노패밀리 상생데이’ 개최

LG이노텍이 지난 6일 ‘2018 이노패밀리 상생데이’를 개최하고 100여 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10년 시작돼 매년 열리는 이노패밀리 상생데이는 LG이노텍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는 ‘2018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체결과 함께 우수 협력사례 발표, 구매 및 품질 정책 공유, 경제동향 특강 등을 마련해 LG이노텍과 협력사 간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진행됐다.

이번 동반성장협약에 따라 LG이노텍은 협력사의 본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 기술, 경영, 교육 분야 지원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LG이노텍은 올해 630억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 동반성장 펀드를 운영한다. 이 펀



‘2018 이노패밀리 상생데이’에서 박종석 LG이노텍 사장(앞줄 가운데) 등 LG이노텍 관계자와 협력사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G이노텍

드를 활용하면 협력사는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이 펀드로 매년 40여 개 협력사가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LG이노텍은 올해 22개 협력사 경영 컨설팅을 한다. 지난 6년간 약 100개 회사

가 경영 컨설팅을 통해 품질과 생산성 개선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지난해 새롭게 시작한 CSR 컨설팅은 글로벌 기업들의 높은 CSR 요구 수준을 고려해 18개 협력사에서 올해 40개사로 확대한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지난 6일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서 안윤환 장학재단 이사장(왼쪽부터), 나동연 양산시장, 한국필립모리스 김병철 전무, 양산 공장장 이리나 아슈키나 상무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

한국필립모리스

양산 장학재단에 장학금 1억 기부

한국필립모리스가 양산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6일 경남 양산시청에서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난 2006년 설립 이래 저소득가정 학생들에 대한 상급학교 진학 기회 제공,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기능, 체육, 예능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가 기부한 금액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한 양산 지역 중·고등학생 및 저소득가정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이 장학금이 양산시 학생들 개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산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2002년 양산시 유산동에 첫 국내 생산공장을 설립한 이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12년에는 약 2000억원의 투자로 기존 생산 규모를 2배 이상 확장한 신공장을 완공해 고용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이바지했다. 또한 한국필립모리스는 2019년까지 총 4억2000만달러(약 4600억원)를 투자하고 700여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현 양산공장을 증축할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허벌라이프 3년연속 한국당뇨협회 공식 후원



지난 6일 진행된 한국당뇨협회 공식 후원사 협약 갱신식에서 한국허벌라이프 정영희 대표(왼쪽)와 한국당뇨협회 박성우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허벌라이프

한국허벌라이프가 한국당뇨협회와 공식 후원 협약을 3년 연속 이어간다고 7일 밝혔다.

한국당뇨협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 법인으로 1995년 설립된 후 3만5000여명의 회원 및 국민을 대상으로 당뇨 관련 교육 및 홍보 관련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허벌라이프는 지난 6일 한국허벌라이프 본사에서 열린 한국당뇨협회 공식 후원사 협약 갱신식에서 당뇨 예방 및 홍보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2년 연속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국당뇨협회와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한 최초의 기업인 한국허벌라이프는 지난 2016년부터 한국당뇨협회를 3년 연속 후원하고 있다.

정영희 한국허벌라이프 대표이사는 “당뇨병 예방과 개선에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 등이 중요한 만큼, 허벌라이프의 전문 분야인 균형 잡힌 뉴트리션을 통한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인용 기자

신점[神占] 운세 2월 8일 (음 12월 23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p>쥐</p> <p>60년생 마음 태우지 마세요. 72년생 공허로운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84년생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루니 차근차근 성취하세요. 96년생 술집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p>	<p>말</p> <p>54년생 자신의 뜻이 굳고 변함이 없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66년생 금전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8년생 휴식이 필요합니다. 90년생 상하가 합동해 큰 일을 해결하게 됩니다.</p>
<p>소</p> <p>61년생 고진감래라 하였습니다. 73년생 귀인이 찾아오니 반갑게 맞이하세요. 85년생 길한 하루이니 희망을 가지세요. 97년생 운이 좋으니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p>	<p>양</p> <p>55년생 고기와 용이 물을 얻으니 의기가 양양합니다. 67년생 재물도 있고 토지도 있으니 하는 일마다 좋습니다. 79년생 아무 일이나 손 대지 마세요. 91년생 자금지출이 막히게 됩니다.</p>
<p>호랑이</p> <p>50년생 험난하고 힘든 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62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지 않는 운입니다. 74년생 재난과 수난을 겪게 됩니다. 86년생 근심걱정이 한번에 사라집니다.</p>	<p>원숭이</p> <p>56년생 하는 일마다 길하니 재물이 쌓일 것입니다. 68년생 이로움이 아주 많습니다. 80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게 됩니다. 92년생 재물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p>
<p>토끼</p> <p>51년생 고난이 있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63년생 의연하게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75년생 무리한 확장이나 투자를 피하세요. 87년생 조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p>	<p>닭</p> <p>57년생 장래를 생각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9년생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81년생 서두른다고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93년생 애정운이 갑니다.</p>
<p>뱀</p> <p>52년생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세요. 64년생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운입니다. 76년생 뜻밖에도 재물을 얻게 됩니다. 88년생 대체적으로 무난할 것입니다.</p>	<p>개</p> <p>58년생 서로 도와주니 그 가운데 이익이 있습니다. 70년생 주위 여건이 귀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82년생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94년생 쓸데없는 걱정은 시간낭비입니다.</p>
<p>돼지</p> <p>53년생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65년생 원통할 일을 경황하게 됩니다. 77년생 귀하를 해하려는 자들의 음모가 진행중입니다. 89년생 건전한 사고를 지니도록 하세요.</p>	<p>돼지</p> <p>59년생 사고의 후유증이 발병할 조짐이 있습니다. 71년생 귀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동쪽에 있습니다. 83년생 재물이 잠시 막힙니다. 95년생 아끼지 말고 힘껏 도전하세요.</p>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9	2		8	7		
	5						1	
4	7			1			8	2
5		4		8		1		9
			5		9			
9		3		7		8		5
8	1			6			9	7
	9						3	
		5	7		1	2		

5	3	8					1	4	6
	7	1	8			3	9	5	
9			6		4				1
				7		2			
3			1		5				8
	4	2	9		8	6	3		
6	8	5				2	1	9	

스도쿠 정답

8	9	2	1	6	3	5	7	4
1	5	7	3	5	8	4	6	9
2	6	5	8	9	7	1	8	3
5	2	8	7	1	5	9	6	4
6	7	9	6	2	5	1	8	3
6	2	1	9	8	5	7	2	4
2	8	5	1	6	9	7	4	3
7	1	6	2	5	8	3	9	1
9	5	1	8	7	2	6	5	4
4	8	7	9	2	5	6	1	3
6	1	2	7	5	8	9	3	4
5	5	9	8	1	6	2	7	4
8	9	2	5	6	1	7	3	8
7	6	5	2	5	4	9	1	8
1	2	5	7	8	9	2	5	6
2	5	6	5	9	8	1	2	7
9	7	1	6	2	7	8	5	4
5	2	8	1	5	7	6	9	3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희의四季



기도의 가피도 인연따라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작은 절 월광사에서 일 년에 몇 번 철야기도를 하는 적이 있다. 신도님이 참석하면 참석하는 대로 아니면 필자 혼자서 조용히 촛불을 키고 향을 사두어 기도를 올리기도 하는데, 신도분들께 기도라는 명목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도의 공덕과 가피라는 것도 다 인연 따라 가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월 경술기도 때의 일이다. 필자와 인연을 맺은 지는 한 이 년쯤 되는데, 상담 후 한 달에 한 번 개최되는 일요법회에 서너 번은 참석했던 분이 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그 사람이 경술기도일에 나타난 것이다. 작년 하반기 법회에서 필자가 2017 정유년 음력 10월이 들어선 후의 경술기도는 대인관계에 장애가 많은 분들은 참석하면 좋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기도 때는 참석자가 그리 많지 않아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매우 진지하게 기도에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기도가 끝난 후 차가 끊어지기 전에 간담며 자리를 떴었는데 그 이후, 그는 계속해서 일요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몹시 힘든 인간관계가 있었는데 경술기도에 참석한 후 신기하게도 해결이 되었다 한다. 일 년 전, 새로 부임해온 지점장과 너무나 맞지 않아서 퇴짜까지도 고민했던 것인데 경술기도 후 예정에도 없던 인사발령이 있었다. 그렇게도 본인을 포함하여 주변사람을 괴롭히던 지점장이 좌천되어 지방 지점으로 전근되었다는 것이다.

그 지점장은 새로 발령이 나려면 최소 1~2년은 더 있어야 했다. 승진도 확실시되는 경우라서 자신의 향후 직장생활은 비전이 있을 것이었는데 대인관계의 문제에서 일이 틀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사이가 좋지 않은 지점장과 아삼육이던 부행정급 임원의 비리문제가 적발되면서 부행장은 옷을 벗었고 그 지점장은 좌천됐으니 앞으로 자신에게는 장애가 될 일은 없을 것 같아 근심이 덜해졌다는 것이다. 어려웠던 자신은 풀려가지만 전도양양하던 상대가 생각지도 않게 일이 틀어지니 인생을 새삼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자신 역시 정도를 걷는 직장생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으며 평소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원장님 말씀처럼 기도를 통한 하심을 닦겠다 한다. 이럴 때 필자가 느끼는 감사와 보람 역시 매우 크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기도의 힘을 믿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